



제 389 호 2015년 2월 11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log.naver.com/cityansan twitter.com/ansancityhall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설맞이 이모저모	04면	생활·경제	06면	문화	09면	교육
3대가 함께 사는 비결 ‘소통과 배려’		안산시, 마이스(MICE)산업계 신설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세월호 ‘안산시민 1,000인이 말하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웁니다” 와동 ‘사람도서관’	



대부북동에 사는 김복동 씨 3대 가족의 설맞이 풍경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김복동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설날을 앞두고 웃놀이하며 새해를 맞고 있다.

3대가 함께 사는 비결 ‘소통과 배려’

80세 김복동 씨, ‘부자자효’ 실천해… “효는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안산시 대부도 대부북동에 사는 김복동 씨(80세)는 아들 내외, 손주 2명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할아버지다.

김 할아버지는 이곳 대부북동에서 태어나 80년을 살았다. 마을역사의 산증인으로서 10여 년간 노인회 총무와 회장을 맡아 100명의 경로당 식구들을 챙기며 마을의 대소사를 책임져왔다.

요즘 김 할아버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것이 특별한 사연이 돼 버렸다. 노인정에 함께 다니는 동료 중 아들내외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자신밖에 없다. 아들 김근철 씨(52세)도 친구 중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는 자신밖에 없다고 했다.

7일 오후 집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는 가족구성원 중 노인들이 소외되는 현 세태에 대해 ‘부자자효(父慈子孝)’라는 사자성어를 예로 들었다. ‘부자자효’는 부모는 자녀를

자애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뜻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효’다. 효는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8형제 중 셋째아들인 김 할아버지는 “부모, 조부모를 모시고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다. 제례를 비롯해 집안의 큰 일을 도맡아 해온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운 아들내외가 자연스럽게 효를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며 껄껄 웃는다.

아들 근철 씨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가정교육도 이뤄진다”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분명히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서로를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저녁에는 근처 맛집에서 외식을 하며 웃음꽃을 피워낸다. 부모가 웃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의 위아래가 정리되

고 가정교육도 이뤄진다.

김 할아버지는 “3대가 함께 사는 비결은 서로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자식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통과 배려를 통해 조율하며 맞춰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욕심을 버리고 봉사하면서 살면 행복이 온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남이 날 찾아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보다는 가족 건강이 우선이다. 새해에는 온 가족이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새해 소망”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고문변호사로서 10년간 법률과 행정소송에 대한 자문을 맡아온 김근철 씨는 “부모님이 정정하셔서 다행이다. 두 분이 건강할 때 정도 나누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그간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새해에는 아버지를 보며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아들이 목표를 잘 이뤄나가고, 여학연수를 떠나는 딸이 건강하게 연수 잘 마치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통계청은 1인 가구 비율이 올해 27.1%를 찍은 후 2025년 31.3%, 2035년 34.3%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했다. 지금의 20대가 40대가 되는 20년 후엔 세 집 중 한 집 꼴로 1인 가구인 셈이다.

‘독립 보다 고립’이라는 1인가구의 현실에 비추어 ‘웃음도 세 배’인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행복은 가히 눈여겨볼 만하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다문화 가족의 설맞이 풍경

76만의 시민 중 8만 명 내외의 외국인이 사는 곳 안산. 그 중 선부동 ‘뗏골’에 둥지를 튼 고려인과 탈북 청소년 그룹홈 ‘우리집’, 취업차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그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자.

선부동 ‘뗏골’의 고려인



안산에서 일하는 고려인들이 함께 모여 운동을 하며 친목과 체력을 다지는 모습

150년 전 러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을 일컬어 ‘까레이스키’ 혹은 ‘고려인’이라 부른다.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불

“명절이면 모여서 음식 나누고 춤을 추며 놀아요”

안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고려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안산에만 약 2천명 이상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인에게 가장 시급한 한글교육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생활상담, 노동·체불상담, 긴급지원 사업 등을 하는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에 모인 고려인들은 쉬는 주말을 이용해 함께 운동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있다.

지난 2월 1일 일요일 오후, 안산 신길고 체육관에 모인 고려인들은 농구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농구 골대에 공을 넣으며 지르는 환호성과 힘차게 배드민턴을 치며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체육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온지 2년 6개월 됐다는 김



올가 씨는 올해 사회통합5단계 합격과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고 한다.

올가(44·선부동) 씨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도 명절이면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도 만들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마요네즈를 넣는 음식이 많아 명절이 지나면 여자들이 살이 많이 찐다”고 소개하며 밝게 웃었다. 이어 “한국에 와서는 명절이면 같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끼리 ‘너머’에 모여 음식도 나누어 먹고 춤도 춘다”며 “한국에서는 설날에 어른들께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준다고 하던데 우즈베키스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신기했다”고 말했다.

또, 올가 씨는 “올해 아직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큰 아들

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 더욱 기다려진다”며 “사회통합 5단계 과정에 합격해 피부미용사 자격증과 영주권을 꼭 취득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홀로 한국에 온지 12년 된 박류드미라(53·선부동)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명절이면 장수의 소망을 담아 국수를 많이 해먹는다.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올해도 건강하고 일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교적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이민 1세대와, 부모님의 고향을 찾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온 이민

2~3세대들은 같은 듯 다른 꿈을 꾸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을 음으로 양으로 돕는 ‘너머’ 관계자들과 내국인과의 소통의 다리를 이어주는 안산시의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으로 조금은 더 끈끈해지고 따뜻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탈북 새터민



‘우리집’ 청소년들이 명절을 맞아 전을 부치는 모습

‘꽃제비’라 불리던 아이들. 그들을 돕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심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우리집’

“고소한 기름 냄새… 잔치분위기 나서 좋다”

이 햇수로 16년째에 접어들었다.

총 13명(남자 6명, 여자 7명)의 아이들이 한 식구로 한 집에서 생활하며, 한국의 초·중·고·대학교를 다니는 등 한국의 청소년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있다.

‘우리집’에 사는 3명의 여학생을 지난 2월 1일 오후에 만났다. 한참 예민한 시기인 중고등학생들인 관계로 이름은 밝히기를 꺼렸지만 대화를 나누는 도중 간간히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내비치기도 했다.

21살이지만 고2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이제 고3이 되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 행정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각 중3, 중2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도 “학교 수업 따라가기가 힘들다. 앞으로 특성화고를 가야할지 일반고를 가야할지 고민이 된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대부분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아이들은 짧게는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명절에 한 번 부모님의 얼굴을 본다고 한다. 이들에게 떨어져 사는 부모님 얘기를 꺼내자 “일을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얼굴도 한 번 못 본 남동생이 중국에 사는 데 보고 싶다”는 등의 소망들을 드러냈다.

모두가 즐거울 것 같은 명절이나 생일이면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아이들. ‘우리집’에서는 명절이면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본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며 함께 차례를 지낸 후 외출을 해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전을 부치면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잔치분위기가 나 기분이 좋아진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혹시라도 우울해하거나 탄 생각을 할까 세심하게 배려하는 교사들의 손길이 따스하다.

‘우리집’은 ‘아이들은 밤에 변한다’는 말처럼 일상을 함께 하는 속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맛보고 자기 삶의 틈을 메우고 자라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새터민 아이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고 남한 청소년들과 동등한 조건과 자격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지원하는 어른들과 그들을 후원하는 많은 이웃이 있기에 아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있다. 그 미소가 오래 머물기를 소망한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지난해, 설을 맞아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고 인사하는 모습

외국인 노동자

주말이면 수만 명의 외국인이 모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는 외국계 업소가 435개소, 음식점만 15개국 175개소에 이른다.

주중에는 각지에서 일을 하고 주말이면 다문화특구에 모여 친구도 만나고 고향 음식도 먹고 고국에 송금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외국인주민센터 통역상담센터에서 모국어로 다양한 상담도 받고 한국어 수업도 듣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용인평생교육원에서 주말을 이용해 한국어 수업을 듣는 외국인 청년들을 만났다. 2010년에 비숙련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첼시(29·필리핀) 씨는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가장 큰 명절로 친다. 새해에는 보통 장수를 의미하는 스파게티와 국수를 먹으며 가족과 함께 보내곤 한다”며 “한국에서는 명절이라 해도 특별한 것 없이 공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올해 8월이면 비자가 만료된다. 그 때까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족초청으로 2011년에 입국한 조홍정(35·중국) 씨는 “중국에서는 만두를 빚어 먹고 친지 집을 방문하며 명절을 보낸다. 또 괴물을 쫓기 위해 폭죽을 터뜨리기도 한다”고

“힘들지만 동료가 있어 외롭지만은 않다”



용인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진지일, 조홍정, 첼시(앞쪽부터 시계 반대방향)

했다. “처음 한국 회사에 들어가 과장님이 얘기할 때 반말로 대답을 해 당황해하는 모습을 봤다”는 에피소드를 밝히며 “지금은 존댓말을 배워서 하고 있다. 한자음이 비슷해 간단한 의사소통은 쉽다”고 말을 이었다. 또 “한국 음식 중 깍두기와 소곱창, 닭갈비, 신 김치와 먹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진지일(25·캄보디아) 씨는 2011년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후 회사에 다니고 있다. 캄보디아는 3번의 설을 쇠는데 날짜는 1월 1일, 4월 14일~16일, 9월 22일이다. 1월 양력 설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행사가 많지 않고, 4월 크마에 새해는 1월 농번기에 쉬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가장 덥고 한가한 시기를 새해로 만들었다고 한다. 고향방문을 위해 2주간의 휴가기간을 준다. 9월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날이며 스님에게 과일이나 음식을 대접하며 1주일 정도의 휴일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명절을 보낼 때는 원곡동에 와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춤을 추러가기도 한다. 올해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꼭 딸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외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고 주말이면 고향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다문화특구가 있어 외롭지만은 않다고 한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회의’ ‘전시’로 고부가가치 창출한다

市, 마이스산업계 신설...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컨벤션센터에 국제회의 및 대규모 전시·이벤트 개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마이스산업. 사진은 국내 대규모 전시장의 모습

안산시가 골목 없는 고부가가치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MICE)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1월1일, 다목적 MICE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투자자유치과 내에 이를 전담하는 마이스산업계를 신설했다.

마이스(MICE)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 등이 합쳐진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마이스 산업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종합산업이다.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를 국제화시켜 외화획득과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도 가능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국제회의와 전시·박람회·관광산업을 융합한 마이스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 산을 해양·관광·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대부도, 시화호, 조력발전소, 갈대습지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안산·시흥 스마트허브의 1만 7천여 개의 기업체가 이루는 융·복합은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환경과 산업이 합

께하는 마이스 산업의 최적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산시는 마이스산업 선진도시 벤치마킹과, 한국 마이스 협회, 마이스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안산시 마이스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계획 안에는 국제회의, 산업전시회 등을 위한 중·소형 컨벤션 건립과 대부도와 연계할 수 있는 신 성장산업 발굴 및 유치, 사업별·기능별 중·장·단기적 연차별 로드맵 수립,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 안산거리극축제 등 콘텐츠들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화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과 전국 다문화도시 1번지로서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자원 개발 등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문의: 안산시 투자자유치과 (☎ 031-481-2351)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와~스타디움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3층 주차장에 시민햇빛발전소 4호기 설치한다

안산시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 1월 16일 햇빛발전소 4호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단원구 화랑로 와~스타디움 3층 주차장에 발전설비용량 302.4kW, 연간전력 발전량 38만6,316kWh의 햇빛발전소를 세워 시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보급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햇빛발전소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희망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3년 1월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기획하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처음 결성됐다. 현재는 538명의 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중앙도서관 옥상에 발전소 1호기와 2호기를 건립했다. 햇빛발전소 1호기는 하루 3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연간 3만7,23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2014년 9월말에 준공된 2호기는 지난해 2만4,571kWh 전력을 생산해 한국전력에 전량 판매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조합원들에게 5%씩 배당되고 일부 저소득 가정의 주거광열비로 지원됐다.

4호기는 시설비 8억 원을 주민들의 출자로 조성할 계획이다. 햇빛발전소 4호기가 연간 38만6,316kWh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수익은 약 1억1천5백8십9만 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햇빛발전소는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해내는 무공해 에너지 시설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4호기는 30년생 소나무 약 2만8천 그루가 1년 동안 공기정화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며, 연간 16만3,797OE의 온실가스도 절감하게 된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은 “햇빛을 이용한 발전은 저탄소 녹색사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청정 무공해에너지를 생산한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무한경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위기 시대에 공공기관 옥상에 건립하는 햇빛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여 안산시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2월 준공예정인 햇빛발전소 3호기와 오는 4월 준공되는 4호기가 햇빛발전을 통해 조합원에게 높은 수익을 안기며 큰 호응을 얻길 기대해 본다.

• 문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031-483-3428)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시, 제1회 소상공인 창업기본교육 실시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경기도 및 안산시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예정자, 사업개시 6개월 미만 소상공인
※ 사업개시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개선교육 수강 또는 경영컨설팅 신청(☎1544-9881)
- **모집인원**: 200명
- **교육비**: 무료 (필기도구, 신분증 지참)
- **모집기간**: 2. 11(수) 10:00 ~ 2. 17(화) 18:00, 경기도민 선착순 접수 마감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시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수료증에 기재됨)
※ 선착순 모집 마감이며, 온라인 신청 완료하신 분들은 해당일자에 교육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2. 교육일정

- **교육기간**: 2015. 3. 5(목) ~ 3. 6(금), 10:00~17:00(12시간)
- **교육장소**: 안산 상록구청 상록시민홀(1층)

3. 문의처

- GSBC 소상공지원센터 (☎ 031-259-6287, 6289, 6196)
- 안산시 지역경제과 (☎ 031-481-2843)

* 교육은 전액 무료이나 점심식사,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접수 후 미수강시 다음교육에 불이익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구인·구직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안산919 취업광장

| 일 시: 2015. 2. 26.(목) 14:00~16:00

| 장 소: 안산시청 대회의실 (민원동 2층)

| 내 용: 구인·구직 현장면접, 일자리관련 부대행사

| 준비물: 이력서, 자기소개서

안산일자리센터
취업상담안내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위치: 안산시청 민원동 2층
• 전화: ☎ 031-481-2919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

안산시 ‘클린 투어’… 환경교육 제대로



학생들이 클린투어에 참여해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있다.



안산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처리계통도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 등은 어떻게 처리될까.

안산시 청소행정과는 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 ‘클린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안산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의 처리과정과 재활용 방법 등을 보여줌으로써 자원 재활용 의식 확산과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돕는다.

단원구 해봉로 45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안산시 전역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곳이다. 청소차 50대가 주택가와 아파트단지에서 수집한 음식물 쓰레기 200톤을 매일 이곳으로 실어 나르며, 운반된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가 제거된 후 세척을 거치게 된다. 세척은 부패가 진행된 음식물 쓰레기의 나쁜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때 세척에 투입되는 물의 양도 무척 많아 5~60톤에 이르고 제거된 물기와 함께 하루 180여 톤의 물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출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진다. 세척이 끝난 음식물 쓰레기는 톱밥을 섞어 총 36일 동안 발효과정을 거쳐 퇴비가 된다.

하지만 이곳에서 매일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200톤 중

약 10% 정도가 퇴비로 만들 수 없는 일반 쓰레기라고 한다. 이 중에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10~15톤은 소각하고 소각이 안 되는 나머지 5톤 정도는 매립장으로 보내진다.

시설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물기만이라도 꼭 짜서 내놓으면 처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들은 자원이 된다. 우선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은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자원 재활용 업체에 판다. 주택가의 가가호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은 시간대 별로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다르다. 1차로 지역에서 폐휴지를 줍는 노인들이 부지런히 거둬 가고 나면 개인이나 재활용품 취급 업체에서 캔, 종이, 병 등을 골라 간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의해 수집돼 단원구 첨단로 696의 ‘안산시 재활용 선별센터’로 들어오게 된다.

센터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의 양은 1주일에 약 220 톤 정도에 이르며, 이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약 76%정도, 일차적으로 집하장에 부려지면 선별직원들이 손으로 재활용품들을 가려낸다. 이후 자동선별 라인에서 비닐, 펠트병,

포장지, 스티로폼 등 품목별로 분류해 고형연료제품(SRF)을 만드는 업체에 판매한다.

선별센터 김남혁 팀장은 “집에서 그냥 무심코 버리는 스티로폼도 모이면 돈이 된다”며 “이곳에서는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을 판매해 연간 7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남혁 팀장은 또 견학 오는 사람들에게 ‘내용물을 비우고 버릴 것’과 ‘재활용 방법을 이웃과 공유하기’, ‘스티로폼 등에 붙은 개인정보 떼어내기’ 등 당부사항도 잊지 않고 전하고 있다.

선별센터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분류된 쓰레기들은 소각장으로 운반돼 종량제 봉투에 담겨 들어오는 쓰레기들과 함께 850℃ 이상의 고온에서 소각된다. 소각장의 정식 명칭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로 소각로 1기가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태운다.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가 소각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소각로 안에서 960℃ 이상의 고온으로 분해시켜 버린다. 900℃ 이상 높아진 열기는 냉각기를 거쳐 200℃ 이하 증기로 만들어져 열병합 에너지 회사에 전량 판매돼 인근 주거지역의 난방에너지로 사용된다. 소각으로 발생하는 유해가스과 분진은 활성탄 주입, 백 필터 등에 의해 제거되고 소각재는 자력선별기로 철제류를 골라낸 후 약품 처리해 매립지로 보낸다.

‘클린 투어’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진행되며, 견학코스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 재활용선별센터 → 자원회수시설 순이다. 안산시민, 초·중·고, 유치원, 기업체, 유관기관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전화 및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명 이상의 단체 견학은 수송버스를 운행한다.

• 문의 : 안산시 청소행정과 ☎031-481-3537~8

백미란 명예기자 <why0218@naver.com>

무료주차장 쓰레기 신속하게 청소한다

단원구, 공영주차장 빠른 청소를 위한 ‘50분 대기조’ 운영



와동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쓰레기처리 50분 대기조 운영 전)



와동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쓰레기처리 50분 대기조 운영 후)

주거지역 내 무료 공영주차장의 쓰레기를 보다 신속하게 청소하기 위해 단원구는 ‘공영주차장 쓰레기처리 50분 대기조(이하 50분 대기조)’를 운영한다.

‘50분 대기조’는 시민과 밀접한 주차장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요구하는 시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 공무원,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청소용역업체 등 가용 인원을 동원해 접수 후 50분 이내에 해결하는 시책이다.

단원구 주택가 내 무료 공영주차장은 안산시 소유의 노

외주차장 49개소 2,303면 그리고 개인 토지의 소규모 임시주차장 37개소 535면 등 총 86개소 2,838면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청소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단원구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쓰레기 청소를 위해 100ℓ 쓰레기봉투 100매 분량의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시민이 함께 도시환경을 꾸미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원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무료 공영주차장은 상업지역이 아닌 주택가 지역으로 시민들이 자주 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게 주차장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또한 청소 요청이 있을 때는 가능한 빨리 처리하도록 인력을 보강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단원구청 경제교통과 ☎031-481-6316

이선희 명예기자 <iamy070@hanmail.net>

안산시민,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이 최우선이다”

‘416희망과 길찾기 1000인이 말하다’ 대토론회 열려



세월호 참사 이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안산 시민들의 일상과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안산시민 대토론회 ‘4·16 희망과 길찾기 1000인이 말하다’에는 안산의 주부·청소년·노인·노동자·시민단체 관계자 등 1,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안산지역 84개 단체가 함께 모여 만든 협의체 ‘4·16 희망과 길찾기 안산시민 1000인 원탁토론 추진위원회’와 안산시, 안산시의회가 공동주관했다.

토론회는 미국의 9·11테러와 뉴올리언즈 재해복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던 토론 프로그램인 ‘타운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그룹 당 10명 내외의 시민들로 구성된 99개 테이블에는 미리 교육을 받은 시민 퍼실리테이터가 토론을 진행하고, 거기서 취합한 내용은 바로 분석팀으로 전달돼 모든 참가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스크린 화면에 띄워졌다. 참석자들은 ‘4·16 이후 무엇이 가장 힘들니까?’, ‘4·16 참사 후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까?’라는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낸 뒤 토론하고 무선투표기를 이용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첫 번째 토론시간에 4·16참사 이후 무기력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참가자는 34%였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69.5%의 참가자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테이블별로 진행된 상호토론 후, ‘세월호 참사 후 어떤 점이 가장 힘들니까?’란 질문에 대한 투표에서 39.3%의 참가자가 ‘미흡한 진상규명’을, 31.5%의 참가자가 ‘국가와 정치권언론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또 추가적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서’라고 답한 참가자들은 38.6%였다.

55번 테이블의 한수연 학생은 “사고 후 3주간은 학교복도를 걸어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친구들을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유병길 씨는 “캐나다만 봐도 사고 직후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데, 한국은 학습효과가 전혀 없이 인재가 계속 벌어져 찌뽕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노시구 교사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불안해지는데 생각만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것은 결

국,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실제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 ‘4·16이후 안산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란 질문에 가장 많은 공감을 모은 의견은 진상규명 촉구활동(38.7%)이 꼽혔다. 도시 안전기능 강화(14.1%), 도시공동체 강화(13.3%), 지역경제 활성화(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는 지자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9.1%), 의회·시청·시민 안전관리 기구 구성(25.5%), 재난재해 안전교육센터 건립(13.6%) 등의 의견이 나왔다.

58번 테이블의 82세 홍익수 할머니는 “손주보다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는데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며 안타까워 했다. 윤은주 학부모는 “진상규명 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되, 단기적으로는 시민이 푹푹 뭉쳐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테이블별 토론을 마친 후 열린 총평을 통해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4·16이 시초가 되어 이 나라에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사회의 숙제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지금도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조차 못해 진상규명 활동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으며, 이 모든 과정들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탁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보고서로 정리되어 안산시 정책 제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성연범 명예기자 <yb1244@naver.com>

‘마을을 담은 학교, 학교를 품은 마을’ 공동체 연대포럼 교육



첫 번째 대화모임 열고 비전 공유

마을공동체와 혁신교육이 만났다.

지난 1월 14일, 안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는 안산 마을교육공동체 연대포럼의 첫 번째 대화모임이 열렸다. 이날 대화모임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4·16이후 안산의 새로운 교육체계에 관해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마을 교육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모임에는 50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 교사, 마을운동가들이 참석해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마을 교육공동

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우리 아이에게 학교는 삶이고 교실은 마을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에 대한 교육, 마을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도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혁신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학교 밖 수업이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복을 입고 모임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마을공동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학생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런 좋은 정보들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4·16교육체제’와 ‘마을 교육공동체’를 2기 혁신교육의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원과 회복 지원과 지역 혁신교육공동체의 의제가 부각된 안산은 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경기도학교급식운동본부 구희현 상임대표는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4·16이후 안산의 교육을 위해 안산시와 청소년 기관단체, 그리고 건강한 학부모 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산 마을 교육공동체의 대화모임은 매월 1회 꾸준히 지

속될 계획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별 마을 교육공동체에 관한 의견수렴도 이 모임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마을 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자치단체, 시민사회, 주민 등이 연대·협력하는 지역 중심의 교육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비전 중 하나다. 경쟁과 수월성을 내세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탈피해 지역과 주민 및 학생 주도의 마을교육, 자율교육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교육협동조합과 교육자원봉사센터 등이 설립될 예정이다. 교육협동조합은 학교매점과 교복, 친환경급식 자재, 학교 버스 등 학교생활 분야의 사회적 기업으로 학부모와 교사, 지역인사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계획이다.

또한 교육자원봉사센터는 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을 위한 각계의 전문인사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을 하나의 인재풀로 조직하고 운영해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사회참여, 학술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을 교육공동체의 사례를 예로 들면 학부모들이 교육협동조합을 구성해 방과 후 교실을 책임지는 형태나, 학교가 마을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7월 24일~26일…국내외 최정상급 뮤지션 출연

안산시는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을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CJ E&M과 공동 개최다.

국내 대표 아웃도어(out door)형 음악페스티벌인 ‘안산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 대부도에서 열린다

밸리 록페스티벌’을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로 변경해 음악 브랜드를 강화했다.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은 2013년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약 4만 평 규모의 페스티벌 전용 부지를 조성해 아티스트가 원하는 최상의 사운드로 퀄리티를 향상시켰으며, 박정현, 국카스텐, 로이킴 등 국내 아티스트와 나인인치네일스, 더 큐어, 스크릴렉스 등 국내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국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를 무대에 세우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에는 대부도 페스티벌 전용부지의 이점을 살려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 최대의 강점으로 꼽혔던 무대, 음향시설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또한 3,5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관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매표소-무대 간 동선을 축소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코첼라’, 영국의 ‘글라스톤베리’, 일본의 ‘후지록’ 등 글로벌 아웃도어형 페스티벌에 버금가는 음향시설과 편의사양을 제공할 것이며, 올해에도 국내외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로 2014년에는 열리지 못했지만 2년여 동안 준비한 만큼 관객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

이며, 페스티벌 홈페이지와 공식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안산시는 CJ E&M의 과공동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효과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은 언론 노출에 따른 인지도 효과 400억원, 지역경제 생산 유발 효과 167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으며, 외부 관광객이 80% 이상을 차지해 페스티벌 기간 동안 안산시에 대한 홍보와 유입효과가 뛰어나 지역주민 역시 페스티벌의 장기 개최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시와 아시아 문화콘텐츠 1등 기업 CJ E&M이 세계 정상급 음악페스티벌인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을 대부도에서 개최하게 돼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된다”며 “대부도를 문화와 음악이 살아있는 보물섬으로 개발해 세계인의 시선을 안산으로 끌어들이고 음악과 문화를 통해 안산시가 한층 더 성숙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해양문화 생태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광과 (☎ 031-481-2721)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2015년 ‘안산아트센터(ASAC)’ 기획공연 프로그램 길라잡이

공연장 1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미션과 비전 제시

지난 2014년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으로 개관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였고, 안산문화재단으로 출범한지 1년이 되는 해이자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큰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져 있었던 해이기도 했다.

마무리되지 못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아직도 우리 안에 넘쳐나는 가운데 공연과 공연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계속되는 질문과 의문에 부단한 고민과 방향을 거듭하고 있다.

공연장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미션과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창출·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길 위에서 그 고민과 시도들을 이어가려고 한다.

점진적이나마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이어가는 행보 속에서 2015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작극장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

음악극 ‘에릭사티’를 2011년 초연 공연과 2013년 한국공연예술센터 공동기획공연의 평가와 조연을 바탕으로 레퍼토리화 하고 유통경로 개발을 위한 재창작 공연을 진행한다. 두 차례 ‘에고편’으로 진행되었던 ‘아삭(ASAC) 몸짓페스티벌’이 11월에 ‘제1회’로 공식 론칭되며, 이 페스티벌 고정프로그램인 ‘몸짓콘서트’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김보람 씨의 시선으로 구성된다. 몸짓콘서트는 이후에도 젊은 무용인들의 자유로운 시선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2014년도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에서 처음 진행됐던 청소년극 축제인 ‘B성년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안산문화재단이 함께 주최한다. 올해는 극단 ‘해인’, 극단 ‘돌파구’, ‘상상만발극장’이 함께한다.

한·일 공동제작 프로젝트 셰익스피어 작품을 각색한 연극 ‘(가제)태풍이야기’가 안산문화재단, 키타리 후지미, 남산아트센터, 제12언어스튜디오 공동제작으로 10월에 공연된다. 또, 베세토연극제 초청작 가운데 헨릭 입센의



‘바다의 여인(원제:The Lady from the Sea)’을 중국 상하이 전통극인 월극으로 제작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시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매년 진행돼 왔던 ‘신춘음악회’는 4월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4·16음악회’로 명칭을 변경,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8월에는 작년에 이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가 2014년 ‘아이브 갓리듬(I’ve got rhythm)’에 이어 ‘아이브 갓 하모니(I’ve got harmony)’라는 타이틀로 예정됐으며, 12월에는 국내 우수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준비한다. 매년 홀수 달 넷째 주 목요일 오전에 진행되던 ‘ASAC아침음악살롱’은 올해 4월부터 짝수 달 넷째 주에 ‘문화의 날’과 연계해 진행된다.

1월초에 뮤지컬 ‘레베카’를 공연했으며, 중장년층 시민

을 대상으로 한故김광석의 노래로 이루어진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4월에 개막한다. 5월에는 2014년 대학로에서 가장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연극 ‘유도소년’을, 6월에는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를 재해석한 연극 ‘메타모포시스’를 공연한다.

매년 작품성으로 인정받은 대학로 소극장 무대를 그대로 옮겨오는 ASAC우수 소극장시리즈로 2014년 국내 언론과 평단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두 작품을 선정, 3월에 연극 ‘먼데서 오는 여자’, 9월에는 연극 ‘만주전선’을 무대에 올린다.

6월에는 현직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들 13인이 함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거장들의 내한공연’이 펼쳐진다.

지역공연 활성화

지역공연단체들의 페스티벌인 ‘ASAC공연예술제’는 극단 예지촌+소금창고+소풍 연합 ‘눌부가족’, 극단 결판 ‘분노의 포도’, 극단 이유 ‘우리 하영이’, 극단 오아시스 ‘매직타임’ 공연이 펼쳐진다. 안산을 소재로 격년제로 공모하는 ‘ASAC창작회공모’가 12월에 당선작을 발표하며, 수도권 신진 공연단체에게 공간을 지원하던 ‘ASAC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가 창작 제작 워크숍 발표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어 새로이 공모를 공지할 예정이다.

다양한 수시 기획 시도

이밖에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지원하는 우수 공연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현재 다각도로 협의 중인 작품들을 갈무리해 다양한 관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할 예정이다.

안산문화재단은 언제나 무대와 객석이 일으키는 스파크가 우리 지역과 우리 삶의 생산적인 에너지가 되리라는 확신으로 스스로 발전소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공연사업팀 (☎ 031-481-4022)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200개 넘는 동호회… 안산은 축구의 도시” 市, 축구인과의 대화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 논의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 일곱 번째 이야기마당’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3시 안산 와~스타디움 2층 기자실에서 열렸다.

이번 이야기마당은 안산시민과 생활체육회 동호회원,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 관계자, 안산시의원, 안산시 체육진흥과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의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서의 축구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에는 조기축구회, 직장축구회 등 축구동호회 팀이 200개가 넘는다고 하며 “200개가 넘는 팀을 보유한 종목은 축구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안산시민이, 항상 우수한 선수를 유지하고 있는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과 연결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이 축구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시민여러분과 경찰청 프로축구단 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안산시는 경찰청 프로축구단을 지역 연고로 유지하고 안산경찰청축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시킨 바 있다. 하지만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지속된 지역경제 침체 등은 축구단의 주변 여건을 어렵게 만들었고 축구단 또한 위기가 필요한 안산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심성보 전 안산시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은 “공단 배후도

시민 안산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축구를 통해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화합을 이루기도 한다”며 “2015년에는 축구단 사무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홈경기 일정을 홍보해서 안산시민이 와~스타디움 홈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안산의 25개동을 발로 뛰어 노인정, 아파트단지 등에 경기일정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는 사무국이 직접 발로 뛰는 소통을 시도해 구단도 알리고 일정도 공유하며, 다양한 이벤트 마련 등 사무국 체제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J리그 반프레 고훈 팀을 예로 들며 “우리 안산시보다도 작은 도시가 구단을 흑자로 꾸리고 성적도 나쁘지 않다”며 “사무국 직원과 희망하는 안산시민이 함께 반프레 고훈을 방문,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산시 체육진흥과 원석호 씨는 지정석을 만들어 일년에 한 번씩 시민에게 제공하자는 의견을 냈고, 안산 신도시 상가 소상공인회장은 유명한 축구선수들의 발을 프린트해 동판으로 제작, 문화광장 보도블록에 설치하는 것도 홍보의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안산시 생활체육협회 장석주 씨는 “주말 리그를 금요일로 변경하면 토요일에 서울이나 수원으로 축구를 보러 나가는 안산시민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공단근로자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공단지역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FC 박진우 코치는 “와~스타디움 경기장과 관중석의 거리가 너무 멀어 선수들의 얼굴도 잘 안보이고 경기의 박진감도 떨어져 축구전용구장 경기에 비해 팬들의 보는 재미가 적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산시로부터 “이동식 스탠드 등의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코치는 또 “지난해 클럽 리그에서 경기도 대표로 선발됐지만 예산이 없어 전국 대회에 못나간 아이들의 실망이 컸다”며 “주말 어린이 리그에는 천명이상의 선수들이 모이는데 엘리트 축구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으로서의 축구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윤성철 부단장은 “외국인을 위한 구장이 있지만 실제 사용은 못하고 있다며 사용시간, 신청방

법 등을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 이흥실 감독은 “오늘 대화마당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7시에 전지훈련장을 출발했다”며 “안산 시민 분들의 축구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200개가 넘는 축구 팀, 시장님의 축구에 대한 열의, 많은 분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열기를 반영해서 올해 작년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치고 여러분들이 경기장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것”이라고 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독/자/투/고

해빙기

시베리아 칼바람이 광란하는 광장에는
숨죽여 인고를 먹는 무리가 있다
동면이라는 이름으로 지독한 형벌을 감내한다
그 인과윤회를 전생의 연으로 용케도 수용한다

시침 초침이 부리나케 작업을 하면
먼 발치로 떠밀려간 또 하나의 행렬이
서서히 지반을 두드리며 기지개를 편다

오직 조물주만이 전능을 부리고
순종의 섭리를 가슴으로 온몸으로
전파하는 몸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길지 않은 고체덩어리의 횡포가
 끝나면 다시 소생 갱생 재생의 이름으로
물렁물렁한 액체의 시대가 오려는가
이름하여 해빙기를 맞이해야 한다

다가온다 입술을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남쪽 마라도의 순한 양같은 바람
조용히 동면기 지나면
딩실딩실 춤을 추고 온다 올 것이다

박재욱 (상록구 두레로)

생활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안산을 돌며 역사를 공부한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역사 문화 탐방 아카데미’ 실시



‘안산 역사 문화 탐방 아카데미’가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안산문화원이 주최

하고 안산시가 후원한다.

이번 문화탐방 아카데미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와 연계해 지역 내 기념관, 박물관, 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박물관이나 유적지가 어려운 곳이 아닌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공간임을 인지하고, 나아가 안산의 역사와 인물들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안산향토박물관을 필수 코스로, 실학의 대가 이익 선생의 업적과 생애를 공부할 수 있는 성호기념관, 식민지 농촌수탈 교육에 대항한 농촌계몽운동가인 최용신 선생을 기린 최용신기념관을 비롯해 사세충렬문, 안산읍성, 별망성지 등 안산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볼 수 있는 유익한 코스로 구성됐다.

2014년 관내 초등학생 3천여 명이 참여했던 역사 문화 탐방 아카데미는 지난 한해 학교 측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교육을 통해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사회과 교과

과정의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고 더불어 안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탐방 참가자는 2월 중순경부터 안산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모집할 예정이며,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안산문화원 ☎ 031-415-0041~2)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웁니다”

단원구 와동에 가면 ‘사람도서관’이 있다

안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없는 동네 ‘와동’. 도서관이나 번번한 문화공간조차 하나 없던 와동 체육공원 안에 노란색 컨테이너 박스가 세워졌다. 작은 컨테이너 안에 책장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기증한 도서를 비치했을 뿐인데 이곳은 와동 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됐다. 와동의 옛 지명 ‘와리’에 방과 마당을 이어주는 공간 ‘마루’를 엮어 만든 ‘와리마루’란 이름이 그래서 이곳에 더없이 잘 어울린다.

와리마루는 ‘우리 동네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꿈이 실현된 와동의 작은 문화 사랑방이다. 2010년 작은 도서관을 바라는 주민들이 주민강좌를 열고 책 수레를 만들어 이동도서관 사업을 시작하며 뜻을 모으기 시작해, 이듬해 컨테이너 도서관 설치 사업이 ‘안

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와리마루’가 탄생했다.

기존 컨테이너와 달리 노란색 귀여운 디자인에 밖으로 개방된 형태를 가진 와리마루는 와동 아이들의 인기 장소다. 이 공간은 아이들이 책을 읽다 놀다 가기도 하고, 동네 엄마들이 와서 차를 마시거나 작은 강좌를 열기도 한다. 굴렁쇠, 투호, 제기차기 같은 놀이기구들을 대여해 아이들이 마음껏 놀기도 한다. 매주 토요일 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와리마루에는 엄마들의 모임인 ‘와리맘스’와 대학생 봉사단 ‘와글와글’, ‘녹색평론 독자모임’ 등 마을에서 함께 봉사하며 사귀기를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다양한 동아리들도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특히 와리맘스는 작년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동아리 지원 사업에도 선정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와리맘스 회원들은 서로가 가진 재능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지난해 와리마루에서는 팬시우드, 북 아트, 비즈공예 등의 다양한 강좌들도 이어졌다.

인문학과 글쓰기 강좌도 자발적으로 이어져 모임이 더 풍성해졌다. 와리맘스 회원 임미라 씨는 “한 가정이 아닌 한 마을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 듯해 ‘아직 세상이 살맛나는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곳이 와리마루”라며 “아직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지역주민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와리마루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사람도서관’이다. 사람도서관은 동네에서 자신이 가진 삶의 이야기 및 장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과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연결해 주는 공동체 소통 프로그램이다. 사람도서관은 사소한 것들을 배우고 싶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와리마루 사람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람 책’으로 등록해 자신이 가진 삶의 이야기나 장기 등을 나눌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 책’을 신청할 수도 있다.

• 문의 : 와리마루 사람도서관 www.warimarusaram.net

송보림 명예기자<treehelper@naver.com>



‘이 달엔 어떤 책을 읽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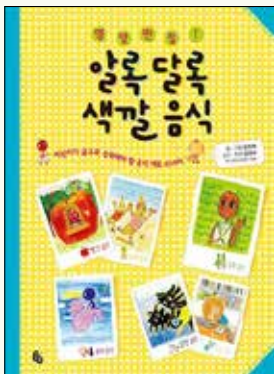
중앙도서관 추천도서

요리에 얹힌 인류 역사, 음식에 숨어 있는 신기한 과학

매일 먹는 밥과 반찬의 색깔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음식의 색이 다양한 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는데... 한 끼 식사를 위해 식탁에 올라오는 수많은 생명체에 대해 생각해보는 적이 있는가? 쌀밥 한 그릇이나 빵, 커피 같은 음식에 45억 년 전 지구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지구와 인류의 역사가 들어 있다면?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책을 읽으며 요리에 얹힌 인류 역사의 음과 양, 음식에 숨은 과학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자.

아동

『알록달록 색깔음식』
김진희 / 토토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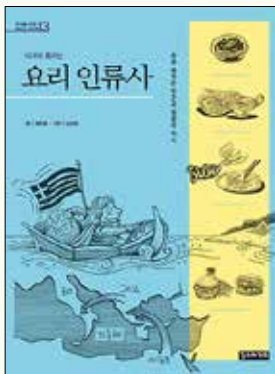
우리가 늘 접하는 음식 재료를 색깔별로 소개하는 책이다.

41가지 좋은 음식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좋은 식습관을 기를 수 있다. 바나나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점이 좋은지, 감자를 먹을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블루베리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등 음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여러 음식 재료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청소년

『10대와 통하는 요리 인류사』
권은중 / 철수와영희



원시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인간과 지구의 역사를 요리와 연관시켜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담고 있다.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문명이 어떻게 정착했는지, 유럽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지, 산업화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등 인류사의 전환점을 19가지 요리 재료에 맞춰 청소년들이 집에서 쉽게 해 볼 수 있는 손쉬운 요리 방법과 함께 소개한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준다.

성인

『맛있는 요리에는 과학이 있다』
아라후네 요시타카 외 / 홍익출판사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다. 단순해 보이는 요리법이 더라도 그 행간에 존재하는 원리를 모르면 제대로 된 맛을 내기가 힘들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이

력을 가진 9명의 저자들이 튀김 조리법부터 야채 보관법까지 요리에 감춰진 과학을 찾아내 알려준다.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요리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담아놓았다.

사랑 속으로



76만 안산시민이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은 도심 녹지를 74%로 어느 곳을 가든 푸르른 녹음과 공원을 만날 수 있다. 또한 60여 국가에서 온 외국인 8만여 명이 각자의 꿈을 찾아 대한민국 안산 원곡동에서 터를 잡고 꿈을 키워나가는 다이내믹(dynamic)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번호부터 안산시에서 사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그들의 소중한 일상과 크고 작은 삶의 부침을 통해 안산시민들의 생각과 안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

김진호·강지영 부부 | “둘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면서...

첫 번째 주인공으로는 지난 1월 17일 결혼식을 올린 김진호, 강지영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단짝 친구 부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는 김진호, 강지영 부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해심이 깊었다.

다음은 신혼부부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Q 남편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꼈나요?

A 가정적이고 자상한 면에 반했어요. 또 저희 부모님께 자주 안부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안산에 터를 잡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가족은 안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후 지금까지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 데이트하러 안산을 오가던 남편이 교통도 편리하고 정이 많은 도시라며 안산에 정착하는데 동의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Q 자녀계획은 어떻게 하셨나요?

A 아들 딸 구별 않고 한 명만 낳기로 시어머님과 남편과 서로 합의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만 낳아 잘 키우고 남은 시간 우리 부부끼리 알콩달콩 재

밋게 살라고 시어머님께서 적극 추천하셨어요.

Q 결혼을 준비하며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A 친정 엄마와 의견차이가 많았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식을 저희 부부가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집안 행사로 생각하시는 바람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평생 싸울 거 이번 한 번에 다 싸운듯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돈독해진 느낌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 결혼준비로 하던 일을 잠시 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부방을 해 볼 생각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며 효도도 두 배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 이다’라고 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성공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신혼부부가 지금의 마음을 잊지 말고 서로에게 여러 번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바란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커피 한 잔에 담긴 이웃 사랑

드림커피교실, 일일찻집 열어 ‘교복 지원’



커피의 그윽한 향만큼이나 향기로운 손길이 이웃에게 펼쳐져 화제다. 단원구 초지동 ‘참좋은교회’ 부설 ‘드림커피교실’은 매년 한해가 저무는 세밑이 가까워지면 일일 찻집을 열어 그 수익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새학기 교복 구입을 돕고 있다.

드림커피교실은 박천영 목사의 부인인 최영하 씨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생각하면서 2011년 6월 개설했다. 이 부부는 2010년 이웃에 살던 10대 청소년의 불장난으로 교회 건물로 불이 옮겨 붙는 사고를 당했다. 그 당시 화재는 순식간에 교회 외부를 태우고 소방차에 의해 진압됐다. 이와 관련 최영하 씨는 “불에 탄 교회를 보면서 화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욱 교류하고 나누는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불에 탄 교회를 수리하는 동안 커피지도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손쉽게 커피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무료 커피교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일일찻집은 드림커피교실이 개설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열려 4회째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에 열린 일일찻집은 그동안 커피교실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 220명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면서 12, 13일 이틀 동안 열렸고, 이날 얻은 수익금 600만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 35명을 위한 교복 마련에 사용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에는 일일찻집에서 540만 원의 수익을 얻어 26명의 청소년에게 교복을 선물했으며 2012년에는 405만 원의 수익금으로 19명을 지원했고, 2011년에는 처음 연 일일찻집 수익금 350만 원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17명의 교복 구입을 도왔다.

교복은 학교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환권으로 지급된다.

최영하 씨는 “커피는 맛보다 향으로 마시는 음료인데 향이 있는 나뭇잎을 통해 우리도 향기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 일이 확대돼서 안산시가 향기 나는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천영 목사는 “안산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 분들이 참 많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서로 돕겠다고 많은 분들이 나서 주셨다. 그래서 일일찻집이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하루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이틀이 되었고, 앞으로는 사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가 종교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저소득 가정을 배려하고 도우면서 예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문의 : 안산참좋은교회 부설 드림커피교실
(☎ 031-439-1009)

백미란 명예기자<whity0218@naver.com>

금연운동 펼치는 김택현 할아버지

“기호품 인정... 금연구역에서만금은 참아달라”



안산시민 건강지킴이로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김택현 할아버지(75세 · 단원구 남예술천로). 지난 2003년 단원보건소 시민건강지킴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10년 넘게 금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담배는 기호품이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우는 것까지 말리지는 못하지요. 다만 법으로 정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삼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택현 할아버지는 담배 주산지인 충남 예산이 고향이다. 형제들이

담배농사를 지으면서 앞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걸 지켜본 것이 금연 활동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활동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이다. 할아버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전철역 주변과 아파트 상가, 공원 등지를 돌며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금연캠페인 문구가 적힌 물티슈를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한다. 또 아이들의 놀이터가 담배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살피고, 2013년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들을 찾아 계도활동을 펼친다.

김택현 할아버지는 “처음 금연 활동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금연 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이 낮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금연구역 확대와 담뱃값 인상 등으로 금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졌고 금연정책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면서 예년에 비해 마음의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 만큼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시민의식이 높아져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일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whity0218@naver.com>

상록구 관내 학교 ‘교복 대물림 축제’

오는 24, 25일...상록구청 1층 로비에서 진행



상록구가 구청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특히 2월에는 안산시 최초로 상록구 관내 학교 교복 대물림 축제가 상록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오는 24, 2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교복 대물림 축제는 말 그대로 졸업생들이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에게 교복을 물려주는 행사다. 이 축제는 개인적으로 알음알음으로 해오던 교복 대물림을 상록구 관내 학교 전체로 확대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교복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교복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사랑을 실천하게 해줄 뿐 아니라, 교복을 다시 구입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록구 관내 학교 교복과 체육복 기증을 원하는 시민은 오

는 12일까지 상록구 각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교복을 물려주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렇게 접수받은 품목은 축제 당일 판매된다. 남방과 블라우스 4천 원, 치마와 바지 6천 원, 조끼와 가디건 3천 원, 자켓 만 원, 체육복 상·하 각 2천 원씩 판매하게 되고, 여기서 나온 판매수익금은 지역 내 어려운 가정에 지원된다.

교복 대물림 축제는 안산녹색소비자연대와 안산부인회, 안산지부, 안산소비자시민모임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상록구는 청사 내 상록시민홀을 시민들의 결혼식과 어린이집 재물잔치 및 발표회, 전시회 장소로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10쌍이 상록시민홀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려 신랑·신부와 가족들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 줬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관내 보육기관의 재물잔치와 발표회 장소로 개방돼 올해 2월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상록시민홀에서는 총 80회에 걸친 행사가 열려, 총 1만6천여 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소통과 감동의 공간으로 이곳을 이용할 수 있었다.

상록구 시설을 대관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엄마·아빠 퇴근 후 야간에 재물잔치를 할 장소가 많지 않고 사용료가 비싸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상록시민홀은 저렴한 사용료에 최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큰 행사를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다”며 큰 만족감을 보였다.

박미라 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민홀 뿐 아니라 로비의 전시 공간, 야외의 상록마루 등 청사 내 다양한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의 문턱을 낮춰 열린 청사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 교복대물림축제 문의 (☎ 031-485-1199)

• 상록구 행정지원과 (☎ 031-481-5176)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관광도시 안산 ‘브랜드 슬로건’ 공모

오는 23일까지 접수, 총 상금 200만 원

안산시는 관광도시 안산 ‘브랜드 슬로건’을 2월 23일까지 공모한다.

이는 관광 안산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 안산을 세계적인 생태·해양관광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관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광정책 트렌드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명품 슬로건을 공모한다.

관광 안산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함축적 문구, 대중성·상징성을 지니며 독특하고 세련된 문구, 국제적 감각과 감성적 어휘로 만들어진 문구로 관광 안산의 미래를 함축하는 문구를 10자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안산시민이나 안산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 대학(원)생도 참가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첨부된 제안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1명)은 150만 원, 입상작(5명)은 각 10만 원을 상금으로 준다. 우편은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31(대부북동 1836-8) 관광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은 1인 3개까지 가능하며, 동일 슬로건 접수 시 먼저 접수된 응모작만 인정하고, 당선작은 3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는 안산시 관광과(031-481-3059)로 하면 되며 이메일 접수는 limbh@korea.kr이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단원구, 버스 승강장이 환해진다 강서고, 선일초 일원...LED조명 설치



LED조명 설치 전



LED조명 설치 후

‘사람중심 안산안전’ 조성의 일환으로 단원구는 지난 해 말부터 어두운 버스승강장 20개소에 LED조명을 설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인적이 많지 않고 주변 조명이 어두운 곳으로 순환로 서부교차로, 강서고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일원에 LED조명을 설치했다.

단원구에는 624개의 버스승강장이 있으며 이중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쉼터형 버스승강장은 329개소로 그동안 인근 가로등의 불빛만 있어, 버스를 타고 내리거나 기다

리는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이번 LED조명 설치로 야간에 버스승강장이 환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버스운전사들이 어두워 승객을 확인하지 못해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던 불만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ED조명 1개당 한 달 전기료는 900원 미만으로 적은 유지관리비에 비해 시민의 호응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버스정보 시스템 서비스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도 얻고 있다. 현재 안산시에는 버

스정보 시스템 635개가 설치돼 있다.

단원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명이 필요한 곳을 선별, LED조명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버스승강장 조명 설치(단원구)에 대한 요청은 단원구 경제교통과나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단원구 경제교통과 (☎ 031-481-6295)

민원콜센터 (☎ 1666-1234)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석수골운동장 내 ‘선부도서관’ 개관



1층 문화교실에서 브라스통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독서·교육·문화 종합적 기능... 다양한 강좌 운영

지난 1월 22일 선부도서관이 개관했다. 석수골운동장 내 (선부로 100)에 위치한 선부도서관(연면적 1,082.82㎡, 지상 3층)은 어린이자료실, 문화교실, 동아리실, 종합자료실, 열람실, 노트북실 등의 내부시설과 다양한 분야의 도서 2만여 권을 갖췄다. 전체좌석은 자료실과 열람실 포함 262석이며 실외주차 45대가 가능하다.

이날 개관식은 안산시·안산시의회·경기도도서관협의회, 안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자 등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하, 기념떡 절단,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는 동네마다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조성하

고 있다”며 “도서관이 평생학습원이라는 조직 아래 유기적으로 협력해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어르신들 모두가 이용하는 독서·교육·문화 시설로 종합적 기능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안산시립국악단은 ‘렛 잇 비’,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가야금3중주, 기악중주로 들려주었고, 책가도 그리기, 떡선물 만들기, 클레이아트, 북아트, 페이스페인팅, 패널 시어터 동화 감상, 브라스통 밴드의 축하공연 등 부대행사에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브라스통 밴드는 ‘도레미 송’을 연주한 뒤 금관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며 브라스밴드에서 멜로디를 담당하는 트럼펫, 가장 낮은 음을 내는 튜바, 지휘자 격인 드럼, 슬라이드를 늘였다 줄였다 하며 음을 내는 트롬본을 소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드럼을 소개할 때는 드럼 솔로곡 ‘드럼 콘체르토’를 연주하는 등 관객과 소통하며 퍼포먼스 공연을 했다.

윤미영 씨(33세, 선부동)는 “그동안 두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다닐 때마다 불편했는데, 집 근처에 도서관이 생겨 무척 반가워요. 꽃 인절미와 양 저금통을 만들며 도서관에서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행복해보이고, 남편과 저는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참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김희서(9세, 선부동) 학생은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이 공부보다 더 좋아요”라며 어깨를 으쓱했다.

관산도서관 전복희 관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가운데 선부도서관이 개관하게 됐다”며 “앞으로 선부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해 연령별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열람실은 동절기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절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이용시간 : 화요일~일요일(오전 9시~오후 6시)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 문 의 : 선부도서관 ☎ 031-481-3885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선부1동 주민센터 신청사 준공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제대로 갖춰

단원구 선부1동 주민센터가 지난 1월 26일 개청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개청식에는 안산시·안산시의회·도의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공연과 경과보고, 기념떡 절단,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된 개청식이 끝난 후에는 선부1동 주민과의 대화도 함께 진행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나눴다.

지난 1987년에 건립된 구 선부1동 주민센터는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그동안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신청사는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 9개월 만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1층은 기계실, 1층은 주차장, 2층은 민원실과 직원 사무실, 3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창작교실, 댄스교실, 문화교실, 정보화교실이 배치 돼있고, 4층에는 대회의실과 동대본부를 갖추고 있다. 옥상에는 하늘정원과 태양열 시스템이 있어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현대식 건물로 건축됐다.

특히 선부1동 주민센터 신청사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세심하게 설계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주민센터 건물 출입문 옆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기, 인적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직원 호출벨까지 설치됐다. 출입구 계단 양쪽에는 핸드레일 손잡이도 볼 수 있고, 바닥에 점자블록도 설치된 상태다.

2층 통합민원실 창구와 사회복지 창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해 턱을 낮췄고, 4층 대회의실 단상은 휠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됐다. 각층을 알려주는 핸드레일 점자안내판과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열리는 3층 각실 출입문에도 점자안내판이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에서 4층까지 마련된 남녀 장애인화장실의 문도 모두 터치식 자동문으로 마련돼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출입을 고려했다. 여성 장애인화장실의 경우에도 아기 기저귀 교환대와 영유아 거치대(유아보호용 의자)를 따로 설치해 편의를 더했다. 이 밖에도 1층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면에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선부1동 관계자는 “신청사 시설에 걸맞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단원구 선부1동주민센터 ☎ 031-481-6849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함께해요

외국인주민센터, 재한중국동포와 범죄예방 간담회 열어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지난 1월 18일 ‘중국동포 범죄 예방 간담회 및 인권교육’이 열렸다. 재한동포연합총회 경기지사와 안산시귀한동포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재한동포연합회 김숙자 회장, 안산시의회 손관승 의원, 원곡 다문화파출소 김윤곤 소장 등 다문화 관계자 외 150여 명의 중국동포가 참석했다.

인권교육 강사로 나선 정명현 소장은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과 다문화 정책,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 자율방범대에서 재한중국동포 범죄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며 범죄예방 및 준법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킨다’, ‘범죄 없는 다문화 만들기’ 조성에 힘쓴다, ‘흥기소지와 과잉 음주 안하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적극적으로 방범치안활동에 참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길복 안산시 귀한동포연합회장은 “최근 재한동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동포사회가 충격에 빠져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국동포를 배척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재한중국동포 범죄예방 대책 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예방방식을 타파하고 모든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판단하는 실효성과 안전성을 결합하는 예방의식을 수립하여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범죄예방을 위한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의 발전 및 치안 개선 등을 위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구의 환경 개선 및 거주 여건, 치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중국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8만여 명에 이르고 그중 중국동포의 수는 4만5천 명에 달한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모여 함께 살아가다보면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문화와 풍습이 다른 이국땅에서 서로의 다름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수용할 때야말로 함께 걷는 길에 좋은 길동무가 되지 않을까.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법률관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산시청 민원동에서 평일 2시~4시, 월요일 저녁 7시~9시까지 상담

안산시는 청사 민원동 1층에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법률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주4회 운영해오던 것을 주5회로 늘려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은 사례는 총 1,247건으로 2013년에 비해 244건이 증가했다. 지난 2월 2일 월요일 오후 7시 경 상담실에는 남편과 사별 후 상속과 빚에 대해 문의를 하기 위해 찾은 여성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있었다. 상담실을 찾은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직장 다니는 관계로 퇴근 후 저녁 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간단한 상담에서

부터 소송 진행 절차 안내, 소장 작성하는 법 등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며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상담실에서는 매매·임대차, 채권·채무, 가사, 상속, 형사 등 법률 전반에 걸쳐 상담이 가능하며, 안산시 법률자문관 이병길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소속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산지부 소속 변호사가 시민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가장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친구맺고 상품받자”

안산시 카카오토리 정식 오픈



안산시는 지난 1월 2일 소셜미디어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카카오토리를 정식 오픈해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했다.

카카오토리를 실행한 후 친구 찾기에서 ‘안산시청’으로 검색해 소식받기를 누르면 유익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안산시 소셜미디어 담당자는 “국민 SNS 매체인 카카오토리 개설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친숙하고 편안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산의 알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공식 카카오토리 개설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 이벤트를 열었다.

카카오토리 정식 오픈 이벤트는 오는 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안산시 카카오토리와 친구를 맺고 응원 댓글을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무작위로 50명을 추첨해 메가박스 콤보 패키지 상품권을 준다. 당첨자는 2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70@hanmail.net>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Q&A

평소 생활하며 느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브라보안산’ Q&A코너에 문의하세요. bravo@iansan.net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Q 집 주변에 대형 차량이 밤샘 주차를 해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서로를 인식하지 못해 위험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불법 대형차량의 주차단속은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연중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기준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대중교통과 (☎ 481-228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Q 환절기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을 많이 찾게 됩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면 더 이상 약을 먹지 않는데 먹다 남은 약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A 각 가정에 방치되어 있거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먹다 남은 약은 가까운 약국 또는 보건소에 반납

하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Q 집 앞 신호등 체계가 차량의 흐름이나 통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등 체계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A 신호체계 관련 문의사항은 안산시 교통정책과(☎ 481-2293), 관할 경찰서(상록구 ☎ 8040-2142, 단원구 ☎ 8040-0152)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성준모 의장이 29일 천안시에서 세월호 가족협의회 회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일부 구간을 함께 걸었다.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 ‘세월호 가족협의회’ 도보 행진 격려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이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등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천안시에서 만나 일부 구간을 함께 걸으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성준모 의장은 지난 29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 모처에서 점심을 마치고 출발 준비를 하던 ‘세월호 가족협의회’ 회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성준모 의장은 위문품을 전달하며 “새롭게 출발한 가족협의회가 단원과 피해 학생과 일반인 희생자, 화물 피해자 등 모든 피해 가족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기대한다”며 “진실 규명과 온전한 선체 인양을 위해 나선 이번 도보 행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이어 성준모 의장은 세월호 참사의 사태 해결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협의회 회원 300여 명과 천안시 시내 1km 구간을 함께 걸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성 의장은 가족협의회 회원들과 보조를 맞춰 걸으면서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온정(溫情) 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앞서 지난 25일 창립총회를 가진 가족협의회는 이튿날인 26일부터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진실 규명 등을 촉구하는 20일간의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시의회 세월호특위, 관내 치유센터 방문

박은경 위원장
“아파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 2곳을 방문했다.

지난 1월 20일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힐링센터 0416 ‘쉼과 힘’ 그리고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치유공간 ‘이웃’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쉼과 힘’은 현재 4명의 근무자들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표현예술 치료를 비롯한 상담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공간 ‘이웃’은 관련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개별 및 집단 상담과 한방 진료 등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치유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이 프로그램들이 특정 분야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당부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박은경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이 사고로 크게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몫”이라며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피해 유가족들과 시민에게 이런 센터들의 활동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안산시의회, 올 해 첫 임시회 열고 안전 심의 ‘통일’ ‘청렴’은 부결…‘해양안전’ ‘정신건강’은 가결



안산시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217회 임시회를 열었다.

27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와 안전한 생명도시 조성’등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이어 전준호 의회운영위원장이 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조직에 대해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홍순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행정 당국이 건축 허가 시 업체 측이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해 대형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안산시의회는 29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를 진행해 각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30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과 ‘안산시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각각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이어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립 동의안’ 및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고잔 연립 8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한 재건축 관련 의견 청취 5건을 가결했다.

성준모 의장은 산회에 앞서 “회기 동안 심사에 임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안산시가 시정에 대한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브리핑 룸을 개설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연재 안산탐방

사사동

沙土洞



지명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廣州) 월곡면(月谷面) 사리리(沙土里)라 했다가 칙령 제49호에 따라 1906년 9월 24일 안산군(安山郡) 월곡면 사사리가 됐다.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1914년 3월 1일 사사리가 속한 월곡면이 수원군에 이관됐으며, 4월 1일 월곡면이 성곶면·북방면과 통합해 반월면(半月面)으로 개칭, 수원군 반월면 사사리가 됐다. 해방 후 대통령령 제161호에 따라 1949년 8월 15일 화성군(華城郡) 반월면 사사리로 됐다가 대통령령 제1443호에 의거 1994년 12월 26일 안산시 사사동이 됐다.

사사동은 조선 말기(1860년 경)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며 이 지역에 반짝이는(아름다운) 모래가 많고, 선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 지명 유래

가재울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어서 가재울이라고 한다. 감자골은 감자 농사가 잘되는 골짜기로 신일산업 옆의 골짜기를 말한다. 독주골은 사사동 맨 끝의 골짜기로 홀로 뚝 떨어져 있어 독주골(獨住谷)이라 했다. 맑은 샘이 있고 가재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말뚝내는 임진왜란 때 의병에게 쫓기던 왜병들이 사사천(沙土川)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말뚝을 박아 말을 매놓고 휴식을 취하던 자리라고 전해진다. 일설에 의하면 명안공주 묘를 만들 때 말을 이용해서 흙을 날랐는데 말뚝이 많아 말뚝내라는 이야기도 있다.

방죽우물은 예전에 우물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방죽을 쌓고 농지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는데 이 우물은 갯고랑 가까이 있어도 물맛이 좋고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에 방죽이 있고 방죽고개도 있는데, 이 우물은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보리작골은 보리를 많이 심던 밭이 있는 골짜기다. 수작골은 물이 아주 풍부한 골짜기여서 수작골이라고 한다. 수청고개는 현재 사사동 쪽의 나봉산 원 터 앞 고개로 지금은 수인산업도로지만 옛날에 도적들이 판을 치고 물품을 요구하는 방을 붙이는 등 협박과 탈취가 끊이지 않아, 마을을 현재의 양짓말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수량이 많은 우물이 하나 있어 식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썼다.

양지마을[陽村]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 위치한 마을이라 양지마을이라고 부르며 상촌(上村)은 마을 가장 위쪽에 있고 예전에 양반들이 많이 살아서 상촌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지금은 현대아파트가 들어섰다.

주리골은 봄이면 물이 풍부해 물대기에 걱정이 없어 마음 놓고 벼농사를 짓던 곳이어서 주리골[注利谷]이라고 하며 신일산업 앞 골짜기를 말한다. 큰말은 인근 마을 중 가장 크고 제일 먼저 형성됐다고 해서 큰말[大村]이라고 부른다.

| 자료제공 : 안산문화원(안산시사 제5권)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성연범 명예기자 <yb1244@naver.com>

안산의 자랑

경기도미술관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길 36 (초지동 667-1)
- 문의 : 031.481.7000 (<http://gmoma.ggcf.kr>)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를 모집 합니다

시정소식을 다양하게 전해주시길 열정적인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인원 : 2명
- 응모자격
 - 성별·나이·직업에 관계 없이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사 작성이 가능한 자
 - 기사 작성에 소질이 있으며 활동능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 전공과 경력에 따른 우대 가능
- 선발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심사
- 접수일정 및 발표
 - 공고기간 : 2015. 2. 4 ~ 2. 23 (20일간)
 - 접수기간 : 2015. 2. 4 ~ 2. 23 (20일간)
 - 심사방법 : 서류심사 50점, 면접심사 50점
- 접수방법 : 이메일(bravo@iansan.net) 또는 공보관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문의 : 안산시청 공보관 ☎ 481-2042

2015년 여성비전센터 상반기 단기(특별)과정 교육 수강생 모집

- 모집개요
 - 우선모집 : 2015. 2. 24 (화) 09:00 ~ 18:00 방문선착순(수강료면제 해당자)
 - 일반모집 : 2015. 2. 25 (수) 10:00 ~ 2. 27(금) 18:00 인터넷 선착순
 - 추가모집 : 2015. 3. 2 (월) 10:00 ~ 18:00 미달과목 인터넷 선착순
 - 모집인원 : 27개 과정, 530명
 - 모집대상 : 안산 시민으로 만 18세 이상 여성(주말, 야간반은 남성 가능)
 - 신청방법 :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http://wm.iansan.net> 참조
- 교육운영
 - 교육기간 : 2015. 3. 9부터 (8주~24주간)
 - 교육장소 : 여성비전센터 본관
 - 수 강 료 : 월10,000원 (재료비, 교재비 별도)
- 문 의 : ☎ 481-2761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변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0.5cm 크게가능)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시행일 : 2015.1.2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문의 : 안산시 민원여권과 ☎ 481-2136

손씻기 체험 기기 대여 운영 안내 “올바른 손씻기를 통하여 감염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단원보건소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들에게 올바른 손씻기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손씻기 체험 기기 대여를 운영하고 있으니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월~12월 연중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단체접수)
- 비 용 : 무료
- 내 용 : 형광로션 및 형광등을 이용한 올바른 손씻기 체험
올바른 손씻기 관련 포스터 및 기타홍보물품 배부
- 신청방법 : 전화 후 팩스로(481-3475) 대여 신청서 송부
- 문 의 : 단원보건소 감염병담당 ☎481-3475

상록구 어머니 합창단원 모집 (수시)



- 모집인원 : 00명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 응모자격 : 안산시 관내 거주 20세이상 50세 이하 여성
- 모집기간 : 2~3월 수시모집
- 전형방법
 - 방 법 : 실기 - 자유곡 1곡, 면접
 - 장 소 : 상록구청 1층 합창단 연습실
- 문의사항 :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 481-5061

단원어린이도서관 2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2월 14일 (토)	2월 21일 (토)	2월 28일 (토)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어린이도서관☎481-3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노인 개안수술 지원사업

-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기준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질환기준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전문의를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 ※ 신청일 이전에 대한 수술내역은 지원하지 않음
-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②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시)
 - ④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 ※ ③~④은 사전동의서 작성하고 열람 가능
- 신청접수 : 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문 의 : 상록수보건소 ☎ 481-5953, 5896
단원보건소 ☎ 481-3482, 3509